

1. 정답: ③해설: 1문단과 2문단에서 엮어 읽기는 독자가 수집한 텍스트들의 수준이 지나치게 이질적이거나 중심 맥락을 잡지 못할 경우 독서가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높은 이질성에도 항상 성공한다는 진술은 엮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정답: ⑤해설: 3문단에서 발췌 읽기는 내용이 부실해지기 쉬운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췌한 조각들을 임시로 연결해 보는 과도기적 단계의 엮어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한계를 보완하려는 적절한 방법을 진술한 ⑤번이 가장 적절하다.

3. 정답: ②해설: <보기>의 1단계에서 데이터만 골라 읽었으나 2단계에서 인과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워 한 것은, 본문 3문단에서 언급한 '텍스트를 단편적으로 수용하여 저자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 구조를 놓치기 쉽다'는 발췌 읽기의 한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4~7] 독서(기술) 정답 및 해설

4. 정답: ④해설: 3문단에서 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이동하는 경우 인수의 수가 글자 데이터에서의 인수보다 수천 배 많아진다고 진술하였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보다 글자 데이터의 인수가 많아지는 경우는 지문의 내용과 정반대이므로 ④번은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④해설: 3문단에서 베이스64 방식은 임의의 테이블에 모인 인수를 '의미를 나타내는 단위'로 쪼개어 새로운 문자로 치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16비트씩 쪼개어 문자로 치환한다'고 진술한 ④번은 지문의 핵심 기술적 사실을 왜곡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는다.

6. 정답: ①해설: 지문에서 "글자 데이터는 소켓 통신을 거쳐 서버로 이동"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소켓 통신을 기반으로 하되 베이스64 방식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두 데이터 모두 소켓 통신 기반이므로, 소켓 통신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DB함수가 인수를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7. 정답: ②해설: <보기>에서 제한된 최대 수송량은 10진수 '27'이다. 요청 X의 인수 값은 16진수 '1A'인데, 이를 10진수로 변환하면 $16 \times 10 + 10 = 26$ 이 된다. 이 값은 수송량 제한인 27보다 작으므로 오버플로우(나)를 만족하지 않고 정상 이동한다. 따라서 ②번이 올바른 진술이다. 오답 분석: 요청 Y의 '1C'는 10진수로 $16 \times 12 + 12 = 28$ 이 되므로 최대 수송량 27을 초과하여 반송된다.

[8~13] 현대시·수필 복합 정답 및 해설

8. 정답: ⑤해설: (가)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욕된 얼굴과 참회록을 응시하고, (나)는 '자화상'을 통해 비루한 삶을 돌아보며, (다)는 '매의 본질'을 보며 자신의 위선을 성찰한다. 세 작품 모두 외재적 대상을 매개로 주체의 내면을 환기하고 있으므로 ⑤번이 가장 적절하다.

9. 정답: ⑤해설: (가)에서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치열한 성찰 끝에 거울 속에 나타나는 화자 자신의 본질적이고 고독한 자화상일 뿐, 한계를 극복하고 재회하게 된 이상적 자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②해설: (나)의 화자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나를 치장하던 고백의 문장들이, 환상이 걷힌 뒤에 지독하게 비루하고 찌부러진 본연의 자화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는다. 결국 이러한 고백들이 자신의 위선을 실존적으로 자각하는 계기가 되므로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11. 정답: ④해설: '전하지 못한 편지 같은 부끄러움'을 안고 '황량한 길'을 걷어가는 것은 과거의 가짜 삶과 환상을 청산하고, 자신의 한계와 비로소 대면하려는 실존적 수용의 태도다. 이를 두고 '과거의 환상을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한 ④번은 부적절하다.

12. 정답: ③해설: 위원님과 세밀하게 교정한 최종 정답지 구조다. (가)의 ㉠(참회의 글)은 외부 시선과 무관한 지극히 실존적인 내면 성찰의 기록이다. 반면 (다)의 ㉡(이상화)는 타인에게 칭찬을 듣고 평판을 얻기 위해 매라는 외부의 화려함을 빌려와 스스로를 꾸미는 세속적 행동이다. 따라서 두 시어의 맥락적 차이를 완벽히 가른 ③번이 정답이다.

13. 정답: ⑤해설: (다) 지문과 <보기>의 핵심을 교묘하게 뒤튼 최고난도 문항이다. '매의 본질을 보며 위선을 반성하는 것'은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외물의 본질을 왜곡해 왔던 과거의 이기적 태도를 깨닫고 '청산'하는 성찰이다. 이를 역으로 '외물의 본질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성찰'이라고 인과를 뒤집어 표현한 ⑤번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었다.